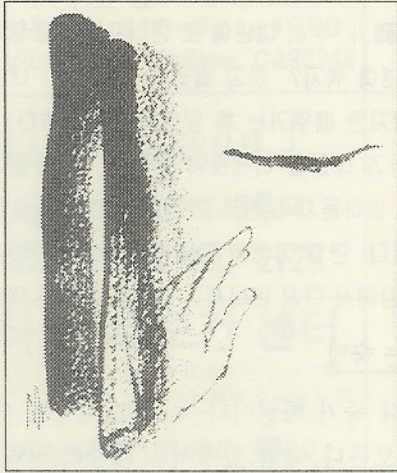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제29권 21호(나해) 2009 · 4 · 19

[묵상]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

안식일 다음 날, 주간의 첫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들 있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
스승을 버리고 모두 달아났던 그들이 아닌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랬다.
그나마 비통함으로 가득 찬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맨 먼저 알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를 확인하였지만
이 확인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혼란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젠 혼란함도 두려움도 끝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평화’를 빌어주셨다.
그분께서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건네주셨다.
배신했던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그들 또한 서로를 용서하라 부탁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시며
‘보지 않고도 믿으니 행복하다.’ 하신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프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압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9:00 1:00 1:00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 윤춘의 스콜라스티카, 한숙이 모니카, 심계순과 홍찬기 대건 안드레아
	(생) 문영일 안토니오와 신혜숙 올리아, 박동수 베드로 가정, 김종길 바오로와 재희 모니카 가정, 서영주 시몬과 호준 안젤라 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주 일 낮 미사	(연) 김수환 주기경,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안준환 미카엘, 이금순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윤춘의 스콜라스티카, 정형두 베드로, 황옥분, 이상현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생) 엄세중 그레고리오, 이윤조 글라라, 오진 베드로, 윤종필 베네딕도, 유영희 그레고리오 가정, 장숙환 수산나, 이봉림 안나, 김영순, 엄정자 분다, 김기정 루치아, 최금옥 말찌나, 홍석인 체칠리아, 장영우 엘리사벳, 조옥중 사제, 박상대 마르코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4,32-35
화답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전례성가 70, 부활 제2주일 참조>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아하론의 집안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일컬으라, 하느님 경외하는 자들아. 영원하신 그 사랑.◎ ○나를 밀고 폐밀어 쓰러뜨리려 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주님께서는 나의 힘 내 노래이시니,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의인들 장막안에 승리의 저 고함소리, 주님의 오른 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옵기에, 저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주자.◎
제 2독서	요한 1서(1 John) 5,1-6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John) 20,19-31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9	169
봉헌	410	183,259
성체	391	307,295
파견	172	166

27.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다. 저녁때가 되어 메뚜기가 “우리 내일 또 놀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니?” 하고 물었다. 메뚜기가 내일에 대해 아무리 설명하여도 하루살이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메뚜기와 개구리가 함께 놀았다. 가을이 깊어져 개구리가 “우리 내년에도 또 만나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메뚜기는 “내년이 뭐지?” 하고 물었다. 개구리가 내년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었지만 메뚜기는 통 알아듣지 못하였다. 하루를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해를 살다가 죽는 메뚜기가 내년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일과 내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여보게, 우리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세!”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 죽음이라는 숙명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아무도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 죽음 앞에서는 제왕의 권력도, 억만금의 재물도, 천재의 두뇌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소중한 것들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기에 슬픔과 고통을 동반한다. 또한 죽음은 단 한 번뿐이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의 경험을 들려주는 사람도 없어 죽음에 대하여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며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한편, 죽음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또한 죽음의 고비에서는 무신론자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절대자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네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때 집을 지키는 자들은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맺돌 가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길로 난 맞미달이 문은 닫히고 맺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이 지지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랫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참양각초는 싹을 터뜨리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은사술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코헬렛 12,1-7)

☞ “죽음은 더디 오지 않고 저승의 계약은 너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집회 14,12) (◆CBCK 제공 - 계속)

새 생명은 필연코 새 삶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를 기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상호 간의 왜곡된 관계를 복원시켜주셨습니다.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화 속에서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아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게 될 선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함으로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뵈고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사도에 관한 이야기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조차도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분의 발현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비로소 개막되었음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에 관해 깊이 숙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란 무릇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도록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에게 삶의 변화를 매 순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진정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날마다의 삶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회개하며 살아야 할

당위성은 사순절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 낡은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림으로써 자신의 일그러진 삶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미에서의 회개는 부활 축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강한 몸짓을 통해 부활의 기쁨 곧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토마스 사도가 고백한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신앙인의 삶 안에서 매 순간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인의 삶 안에서 절대적인 주관자가 그리스도가 되고,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요한17,3)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인간들끼리 화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구체적인 삶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부활의 새 생명에 관해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토마스 사도처럼 아직도 구체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믿을 수 있다는 식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의 낡은 모습을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부활의 삶을 사는 길이 아닐까요?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성인 크리스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하느님의 자비주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의 시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 미사 중에서>

◆ 양업회 4월 월례회의

- 일시 : 오늘 주일(19일) 낮미사 후 친교장
☎(310)701-6343 김찬구 요한 양업회장

◆ 백삼위 레지오 마리아 뿌리아 창단 준비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9일) 낮미사 후 오후 1시30분, 강당
- 각 프레스디움 간부는 모두 참석하기 바랍니다.

◆ 백삼위 본당 견진성사 교육

- 교육일정 : 4월21일(화)~24일(금) 오후 7:30~9:30, 성전
 - * 21일(화) : '성경안에서 만나는 하느님'(구마리아네 수녀)
 - * 22일(수) : '성숙한 신앙생활'(구마리아네 수녀)
 - * 23일(목) : '하느님, 세상 그리고 나'(박상대 마르코 신부)
 - * 24일(금) : '견진성사와 평신도 사도직'(박상대 신부)
- 견진성사 : 4월2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에
- 주례 : Bishop Alexander Salazar (San Pedro Region)

◆ 백삼위 울뜨레아 4월 모임

- 일시 : 4월24일(금) 오후 8시 강당
- 문의 : 간사 이명렬 라파엘 ☎(310)374-1572

◆ 박상대 마르코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4월25일(토)은 성 마르코 복음사가의 축일로 본당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축하행사는 26일 주일 낮미사 후, 알렉산더 살라자르 주교님을 모시고 친교장에서 건진 파티와 함께 있겠습니다.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요셉회/안나회 봄철 온천관광

- 일시 : 4월28일(화),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정월 55명
- 신청 : 이영희 카타리나 회장 ☎(310)518-1736
권영옥 루치아 ☎(310)720-2876. 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 남가주 M.E. 제63차 첫주말 참가부부 3쌍 확정

- 참가부부 : 이명렬 라파엘 & 명순 크리스티나,
윤화경 마오로 & 경옥 실비아,
이호미 엘리사벳 & 홍광선
- 일정 : 5월1일(금)~3일(주일)
- 장소 :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P.V.)
- 문의 : 백삼위 대표부부 최사비노 & 안젤라 ☎350-4185
- 세쌍의 부부들에게 은혜로운 첫주말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사순절 희생애공 봉헌 감사합니다.

- 희생과 극기, 모속, 선행으로 모아진 사순절 희생봉투를 봉헌하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애공봉투는 LA 대교구의 'Together in Mission'에 보내질 것입니다. 아직 봉헌하지 않은 분들은 주일미사 중에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제18차 남가주 한인 선택주말 참가자 모집

- 일정 : 6월25일(금)~28일(주일)
- 대상 : 22세~35세 미혼 남녀 * 참가비 : \$200
- 지도 : 김두진 바오로 신부(예수고난회)
- 장소 : Mater Dolorosa Retreat Center
- 신청서 : 본당 사무실 / lachoiceweekend@gmail.com
- 문의 : 총대표 김현철 아우구스티노 ☎(310987-8008)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부활절을 기해 성물부에 새로운 성물이 많이 준비됐습니
다. 건진성사를 받을 형제자매들에게 선물할 아이템이 많으
니 한번쯤 둘러주세요. 축성받은 성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19일(주일) : P.V. 2반(비빔밥 \$3)
- 4월26일(주일)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전신자에 국밥대접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 옥	김원호	김윤진	김찬구	김충섭	성전헌금	김 옥	김원호	김윤진	김찬구	김충섭	나경흠
	나경흠	민기남	박영식	방정복	성낙호	신승성		민기남	방정복	성낙호	안재만	안태갑	오태환
	안재만	안태갑	오태환	우영주	육근주	육재민		우영주	육재민	이상규	이영숙	이용식	이재정
	윤석구	이상규	이영숙	이용식	이재정	임현기		임현기	장숙환	장영우	장정진	정규숙	주대중
	장숙환	장영우	장정진	정규숙	정상문	주대중		차봉관	차인수	채양석	최의수	최경진	황인종
	차봉관	차인수	채양석	최의수	최태훈	호경진							
	황인종	김아가비	도 송	마이클									
합계 : \$3,725						합계 : \$2,645							
미사헌금 : \$5,688						사순애금 : \$9,156						감사헌금 : 김대우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은총시장 행사

- 일시 : 오늘 주일(19일) 학생미사 후 각 반별로 있습니다.
- 초등부 학생들이 사순시기 중 기도문 암기, 주일미사 참례, 성경쓰기 등으로 얻은 포인트에 따라 선물을 받게 됩니다.
- 주일학교 은총시장을 위하여 성모회에서 \$200을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상반기 한국학교 교사 연수(중급과정)

- 일시 : 4월29일~5월22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백삼위 본당 강당
- 교과목 : 창의적 사고력 키우기, 읽기교육, 문법, 쓰기, 글짓기, 중급반 모델수업 등
- * 문의 : 이헬레나 본당 한국학교 교장 ☎(310)347-8765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26일(주일)
- 장소 : Steubenvill,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
- 참가비 : \$150
(Early Bird Price : 4월30일까지 \$120)
- 신청마감 : 5월31일(주일), 35명 선착순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남가주 소식

◆ 하느님 자비의 축일 특별행사

- 일시 : 오늘 주일(19일) 오후 2시30분
- 장소 : 성 바실 회관(3535 W. 6th St. LA)
- 주례 : 박기준 라우렌시오 신부
- 행사 : 자비심 기도, 미사, 성체강복
- 문의 : 성 바실 성당 ☎(213)389-3142

◆ 에콰도르 의료 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6일(월)~7월14일(화)
- 장소 : 에콰도르 과야킬 교구 팔마 본당과 공소
- 모집대상 : 의료진과 대학생, 일반 봉사자
- 참가비 : \$1500
- 지도 : 이영찬 신부
- 주관 : 해외 빈민구제회/가톨릭 의료봉사회
- 문의 : 정동현 마르첼리노☎(213)820-3162
김진환 안나☎(213)272-7404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4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테레사 328-0847	신현화 테레사 533-9538 4/24(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김찬구 요한 701-6343 4/18(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4/17(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4/19(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철우 야고보 373-8340 4/8(수) 오후 7시, 양산박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미성 미리암 429-6204 4/16(목)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오창애 안나 326-1519 4/17(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김율리아나 325-6982 4/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17(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최미영 클라라 895-8624 4/17(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4/17(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유근우 알렉시오 735-3721 4/17(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4/17(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김도완 다니엘 892-1213 4/17(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프란체스카 가보라 265-0495 4/16(목) 오전 10시, 성당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바오로 서간 필사 순서: 테살로니카 1서, 테살로니카 2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 에페소서 - 하느님 구원계획의 신비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 (2) ◎

◇ 집필 배경과 시기: 이 서간의 수신인은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이다. 그런데 이것뿐이다. 바오로 사도의 다른 서간들에서는 그곳 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데 비해 이 서간에는 그런 상황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새 사람이 됨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일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또 같은 맥락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페소서는 바오로의 이름을 빌어 에페소라는 공동체에 보내는 서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에페소라는 특정한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영향을 입은 제자가 스승의 사상을 바탕으로 당시 여러 교회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서간을 바탕으로 추정하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일 것이다. 이는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전 편지들에 비해 좀 더 일반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다른 한 가지는 당시 교회 신자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다. 신자들은 세례로 새 사람이 된 만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자는 서간의 거의 절반을 새 생활의 규범에 할애하고 있다. 학자들은 서간의 집필 시기가 늦어도 기원후 100년을 넘지 않을 것이고, 빨라도 기원후 7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물론 이 서간이 바오로 사도의 친서가 아니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 주요 내용과 구성: 에페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1,1-3,20)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 실현됐고 교회 안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반부(4,1-6,24)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일치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생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반부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관한 교리를, 후반부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와 관련한 권고를 담고 있다.

서간은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인사(1,1-2)에 이어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고(1,3-14),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진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를 기도한다.(1,15-23)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지는 구원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이요(2,1-10), 유다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2,11-22) 이방인을 위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직을 받은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3,1-21) 서간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이뤄주시는 일치를 보존하라는 권고로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마치 온 몸이 각각의 관절로 잘 결합되고 연결되며 또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하여 온 몸이 자라게 되듯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4,1-16) 이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 권고한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새 인간으로 갈아입어야 한다.(4,17-24) 성령의 인장을 받은 새 인간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서로 자비롭게 대하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빛의 자녀답게 선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으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4,25-5,20) 서간은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구체적 관계에 대해, 즉 아내와 남편(5,21-33), 자녀와 부모(6,1-4), 종과 주인의 관계(6,5-9)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영적 무장을 하도록 권고하면서 마지막 당부와 인사로 끝을 맺는다.(6,10-24) 에페소서의 이 같은 내용은 그 당시 교회와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세례를 통해 새 사람이 됐으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힘 있는 메시지다.

[◆평화신문 이창훈 기자]